

EU-미국 무역 협상 결과 및 시장 반응

강영숙 | 선진경제부장(3705-6209)

최가윤 | 연구원(3705-6056)

- [이슈] EU와 미국은 2주 간의 대치 끝에 무역 협상^{framework deal}을 타결. EU는 15% 기본관세를 수용하고 미국산 에너지 구입, 대미 투자 확대 등에 합의
- [해외 시각] 최악의 시나리오가 회피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. 15% 관세는 30%보다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나쁘고 EU 경제에 일정 수준 타격은 불가피
- [시장 반응]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선반영된 가운데 협상 타결에 대한 안도감이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바뀌면서 유로화 약세, 주가 하락
- [시사점] 합의 시에도 트럼프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잔존. EU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위험 관리를 위해 무역 다각화에 속도를 낼 전망

□ [이슈] EU와 미국은 2주 간의 대치 끝에 무역 협상^{framework deal}을 타결. EU는 15% 기본관세를 수용하고 미국산 에너지 구입, 대미 투자 확대 등에 합의

- (합의 내용) 백악관^{Fact Sheet}에 따르면 양측은 ▲미국의 15% 관세(철강, 알루미늄,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) ▲특정 품목은 상호 무관세 ▲EU의 대미 관세 철폐 및 쿼터 제공 ▲EU의 3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 \$7,500억 및 대미 투자 \$6,000억 ▲EU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▲EU의 비관세 장벽,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 노력 등에 합의
 -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의 성명에 따르면 15%는 명확한 상한(기존 관세율 대체)으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없고 모든 것을 포괄. 철강·알루미늄에는 계속 50%가 부과되지만 인하 및 할당제로의 전환을 목표
 - 항공기 및 부품, 특정 화학 제품, 복제약, 반도체 장비, 특정 농산물, 천연 자원 및 핵심 원자재 등 전략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^{zero-for-zero} 적용. 추후 품목 추가 예정
- (협상 전개) EU는 협상 초기에는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목표로 했지만 미영 합의 후에는 10%, 마일 합의 후에는 15%가 목표가 된 상황. EU가 15% 관세를 수용하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회피

- 미국은 4.2일 상호관세 발표(EU는 20%)→4.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(10% 보편관세만 적용)→5.23일 50% 관세 위협→7.12일 30% 관세 위협으로 EU를 압박
 -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으로 중국 제외 3대 수입 대상국(EU, 멕시코, 캐나다)에는 4.2일 대비 현저히 높은 세율을 경고하고 보복 시에는 추가 인상을 시사
- EU는 협상 실패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도 실행을 연기하고 규모를 축소하며 ‘협상을 통한 해결’을 모색
 - 철강·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첫 번째 보복 패키지는 €260억에서 €210억으로 축소되었으며 상호관세, 자동차·부품 관세에 대한 대응 규모도 당초 논의되던 €950억에서 €720억으로 축소
- (EU측 반응)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15%는 EU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EU-미국 관계에 “안정성”과 “예측 가능성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옹호. 또한 상호 무관세 품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
 - 관계자들은 10% 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지면서 EU가 이미 15% 가까운 실효 평균 관세율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
- [해외 시각] 최악의 시나리오가 회피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. 15% 관세는 30%보다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나쁘고 EU 경제에 일정 수준 타격은 불가피
 - (15% 기본 관세)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많은 국가들에 10~15% 관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15~50%의 단순 관세 부과를 주장하여 15%가 새로운 기준선이 된 인상
 - 트럼프 대통령이 15%보다 낮은 관세율에 동의한 것은 5월에 체결한 미·영 협정 뿐이며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송 익일(7/13일) 일반적으로 먼저 협상을 체결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협상을 성사시킨다고 발언
 -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 미 주가가 “사상 최고치”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. 시장의 회복력이 고관세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가능성
 - (EU-미국 협상) 15%가 기존 관세에 가산되지 않고 일부 품목별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일부 모호한 점도 있어 상세 내용을 채우는 협상이 중요. 동 과정에서 추가 양보가 요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

- ①EU에 특별하게 높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②자동차 관세가 인하된 점 ③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점 ④일본(\$5,500억)과 비교해서 경제 규모 대비 작은 투자가 약속된 점 등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
 - 관세가 현재 10%에서 15%로 인상되지만 특정 면제와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를 상당부분 상쇄, 세율은 현 수준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가능성(GS)
 - EU 기업들의 연간 대미 FDI 규모가 \$1,800억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년내 \$6,000억은 달성 가능한 규모(Danske). 다만 백악관은 \$6,000억이 기존 투자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
- 다만 마일 협상 사례에서 보았듯 공식적인 협정이 없으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상기. 현 시점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30% 관세 회피에 한정되며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와 이행 리스크가 초점
 - 집행위에 따르면 대미 투자는 전액 민간 부문에서 나올 예정이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(Politico). EU가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지도 불확실(ABN Amro)
 - 2024년 EU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은 \$650억에 불과. 디젤, LNG를 모두 미국에서 조달한다 해도 이는 엄청난 부담이며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과도 어긋나는 조치(Rabo bank)
- (EU 경제 영향) 상반기 유로존 경제는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연초 대비 크게 높아진 관세나 미국으로의 투자 전환 가능성은 EU 경제에 부담
 - EU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17%로 인상되는 반면 EU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0%로 인하되면서 EU GDP 0.2% 감소 가능성(Capital Economics)
 - 15% 관세로도 미국내 유럽산 제품 수요는 크게 약화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흡수할 경우 이익에 악영향. 어느 쪽이든 유럽 경제에는 타격(Nomura)
 -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으나 4.2일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유럽에 좋은 소식은 아님. 장기적으로는 유럽 경제의 성장력을 약화시킬 우려(Amundi)
 - 관세가 전년대비 평균 10% 이상 인상되면서 EU의 대미 수출이 향후 2년간 1/4 감소할 것으로 전망(Commerzbank)
 - EU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, 방위 산업 등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전환은 EU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(DB)

-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EU에 득이 되지 않으며 그 결과는 유로화 약세로 나타날 전망. 유로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(Bloomberg)

□ [시장 반응]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선반영된 가운데 협상 타결에 대한 안도감이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바뀌면서 유로화 약세, 주가 하락

- 환율: 유로/달러 환율은 달러화의 반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(-1.3%), 전주 무역 협정 합의 낙관론으로 인한 상승분 이상을 반납
- 주가: 주가(STOXX600)도 장 초반 0.9%까지 상승했으나 수출 둔화, 기업 이익 감소 우려 등으로 하락 반전(-0.22%). 자동차(-1.8%), 방위(-1.3%) 업종 중심으로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했으며 독일(-1.02%), 프랑스(-0.43%) 모두 지수 급락
- 금리: 국채(10년)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하락(독일 -3bp, 프랑스 -4bp, 이탈리아 -5bp). 통화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단기 금리도 크게 하락(독일 2년물 -3bp)

□ [시사점] 합의 시에도 트럼프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잔존. EU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위험 관리를 위해 무역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

- 현 추세대로라면 EU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EU의 비관세 장벽 등은 계속 쟁점으로 남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
 - USMCA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, 캐나다와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을 상기
- 폰테어라이엔 위원장은 7/27일 성명에서 무역 파트너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. 한편 7/24일의 EU-중국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점은 EU가 미국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
 - EU는 인도, 일본 등 아시아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면서도 중국과의 투자 협정은 재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209 혹은 yskang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